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26>

<5부> '귀농' 꿈을 이룬 사람들

① 농촌에 활력 넣는 귀농

“인생 2막, 흙에서 살자”... 지난해 1800가구 전남으로



인생 2모작을 위해 귀농을 선택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강진군이 마련한 귀농교육에 참가한 수도권 거주 귀농희망자들. <강진군 제공>

이모(48)씨는 33년간의 광주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달 21일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에 있는 장성드림빌에 입주했다.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면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야채로 먹을거리도 해결할 수 있고 인근에 전국적인 명문고와 있어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의 농어촌 뉴타운인 장성드림빌에는 이씨같은 귀농·귀촌 세대가 200가구에 달한다. 분양 70가구, 임대 130가구로 구성된 이곳의 입주율은 100%에 달하고 5년후 분양전환하는 임대가구는 입주 대기자가 2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해가 갈수록 귀농·귀촌 가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이 활력을 찾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저렴한 초기 정착 비용 등 최적의 조건으로 인해 귀농·귀촌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적으로 1만503가구 2만3415명으로 처음으로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남은 1802가구로 강원(2167가구)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순수 귀농 가구는 84.4%인 1521가구에 달했다. 나머지 281가구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텃밭 정도를 가꾸며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87명(32.6%)로 가장 많았고 50대 553명(30.6%), 30대 309명(17.1%), 60대 256

명(14.2%) 순으로 집계됐다. 귀농인이 재배하는 주작물은 배·배추 등 노지작물이 804명(44.6%), 원예 191명(10.5%), 과수 164명(9.1%), 축산 116명(6.4%)으로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 확률이 낮은 노지작물 선택 비율이 높았다.

전남지역은 특히 2009년이후 귀농·귀촌 가구가 급증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전년대비 88.6% 증가

대 작물까지 재배가 가능한 기후조건도 한몫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귀농지원 정책도 도시민을 전남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강진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07년 5월 귀농자 지원조례를 만들어 64세이하 귀농자를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5년 연속 100가구 이상의 귀농

작목 추천 등 귀농계획 수립부터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22개 시군 귀농센터와 연계해 귀농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 교동마을, 해남 송평마을 등 도내 16개 마을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해 귀농 희망자들이 최장 6개월까지 관리비 등 실비만 부담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거나 귀농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귀농으로 역대 부농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전남지역 농업인은 2753명으로 전년대비 37% 늘었다. 전남은 경북(7499명)에 이어 역대 부농이 두 번째로 많은데 2009년 귀농이 본격화 된 이후 2년만에 148.7%인 1646명이 늘어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뚜렷했다.

손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정체활동이 절정기인 40~50대를 중심으로 귀농자가 늘어나 농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외환위기때는 내쫓기듯 귀농하는 ‘생계형 귀농’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인생 2모작을 전원에서 찾으려는 ‘가치형 귀농’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전남, 강원이어 전국 두번째... 지난해 135% 늘어

지자체, 주택 구입비·정착 교육 등 지원책 다양

1억이상 소득 2753명...귀농 본격화 이후 증가세

한 549가구이던 것이 2010년에는 768명으로 39.8% 늘어났는데 이어 2011년에는 134.6%나 급증한 1802가구를 기록했다.

전남이 귀농 1번지로 부상한데는 토지가격이 강원 다음으로 낮아 초기 정착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 지가는 ㎡당 3만6310원인데 반해 전남은 6508원으로 강원(4113원)에 이어 가장 낮다. 여기에 전국 최고인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로 인해 아열

자를 유지했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귀농인 1만 가구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귀농인 창업 및 농가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과 주택수리비 보조지원, 귀농 교육, 도시민 농촌체험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사무소에 귀농귀촌센터를 설립하고 수도권 희망자들에게 전남도의 지원사업과 농촌 정착 요령, 고소득

■ 귀농 7단계

가족들 충분한 동의 얻고

정착지·작목 등 신중 결정

귀농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식품부는 그러나 철저한 준비없이 귀농할 경우 자칫 생애 마지막 투자에서 실패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귀농 성공을 위한 7단계 준비를 제안하고 있다.

귀농 결심

1단계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가족 합의

2단계

농촌으로 내려가자고 할 때 선택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해야 한다.

작목 선택

3단계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영농기술

4단계

작목 선택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익혀야 한다.

정착지 물색

5단계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해 정착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 구입

6단계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영농계획

7단계

수익을 올릴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리므로 가격변동이 적고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 계 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ojang.com